

결정장애는 이제 안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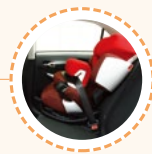
안전한 육아용품 똑똑하게 선택하기

아이가 자라면서 필요한 육아용품은 다양하다. 게다가 육아용품의 가격, 제품 특징도 다양해 어떤 것을 써야할지 선택의 늪에 빠지기 일쑤다. 인터넷에서 추천하는 제품들 또한 내 아이에게 다 맞는 것은 아니니 선택에 좀 더 신중을 기하게 된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어떤 육아용품을 선택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는다면 이것만은 꼭 확인해보자.

글_편집실



카시트, 디자인보다 내 아이!



많은 육아용품 중에서도 카시트는 예비 부모들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용품이다. 대부분의 부모가 신생아 때는 바깥 외출을 자제하는 만큼 카시트는 병원 또는 조리원 퇴원 시에만 잠깐 사용하는 제품으로 인식해 구입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다. 간혹 아이가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부모가 아이를 직접 안고 차에 탑승하기도 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만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차량에 탑승할 때 카시트 장착이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반드시 구입해야 한다.

구입 시에는 아이의 안전을 위해 꼼꼼하게 제품을 확인해야 한다. 아이의 체중에 맞는지
도 살펴야 하고, 어깨띠가 헐렁하지 않고 아이에게 딱 맞는지도 알아봐야 한다. 또한, 아
이가 앉았을 때 엉덩이와 허리가 카시트에 딱 붙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TIP

안전한 카시트 선택을 위한 매뉴얼

1. 안전검사 여부를 확인한다.
 - 수입 및 국내제품에 'KC 인증' 마크 확인
 - 공산품명에 '자동차 어린이 보호장치' 명칭 표기 확인
2. 같은 성능이라면 가벼운 것이 안전하며, 등받이는 아기의 머리보다 높아야 한다.
3. 안전띠 조작성 간편한지, 신체 발달 정도에 따라 변형 가능한 제품인지 확인한다.



'KC 인증' 받은
매트가 안전



보통 매트는 재질에 따라 PE(폴리에틸렌), PU(폴리우레탄), PVC(폴리염화비
닐) 정도로 분류하는데 거실에 놓을지 놀이방 용도로 사용할지 사용 목적에 따라 고르면 된다.
PVC의 경우 고밀도, 저탄성의 폼을 구성해 충격 흡수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폭신한 쿠션
감을 띠고 있으며, PE는 공기층이 풍부해 가볍고 단열성이 좋다. 주로 아이가 어릴 때는
쿠션감이 좋은 PVC 매트, 활동량이 많아지는 시기가 오면 PE 매트를 사용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아이가 온종일 사용해도 안전한 제품인가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을 통과한 제품인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한다. KC 인증 마
크 유무와 사용 소재만 꼼꼼히 확인해도 얼마든지 실용적이고 안전한 매트를 구입할 수 있다.



내가 사고 싶은 육아용품, KC 인증 마크 있는지 확인하려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 조회 가능!



여기서 잠깐! 제품안전정보센터에 대해 알아볼까요?

제품안전정보센터는 제품으로 인한 사고·상해 등의 정보를 다각적으로 수집, 관리(분석/평가), 보급하는 전
담조직입니다. 제품안전 관련 시장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설치되었으며, 제품결함 및 사고신고(☎1600-
1384)도 받고 있어요. 신고대상 제품은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식기류, 자동차를 제외한 생활제품이며 일
반적인 품질불량 제품에 대한 불만 사례나 소비자 과실이 명백한 사고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친환경인증 기저귀라면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기저귀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용하는 육아용품이다. 365일 아기의 연약한 맨살에 직접 닿는 제품이니만큼 피부질환 걱정이 없는 제품으로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한 소재로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려면 친환경인증마크를 확인해야 한다. 친환경인증마크는 국내 환경부에서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인증마크이다. 제품에 친환경 소재나 성분이 들어갔을 때 주어지는데 보통 나라별, 종류별로 이름이 다르니 구매 전 관련 정보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국내의 경우에는 환경부가 공인하는 '로하스(LOHAS)' 인증이 대표적이다. 로하스 인증 홈페이지(www.korealohas.or.kr)에서 직접 인증업체를 검색해 관련 제품의 정보를 알아놓으면 실제 구입할 때 많은 도움이 된다.

대한민국 로하스 인증 제도란?

21세기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늘 푸른 사회·건강 사회·행복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로하스(LOHAS) 정의에 따라 노력하고 성과를 보인 기업 및 단체의 제품, 서비스, 공간에 대하여 한국표준협회가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 인증대상



건강·환경·사회
지향적



제품



서비스



공간

※ 출처 : 대한민국로하스인증

**유아용 식탁의자는
실용성 높은 제품으로**



유아용 식탁의자는 올바른 식습관을 길러주고 가족과의 유대감을 형성해 많은 전문가가 권장하는 육아용품으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아이가 목을 가눌 수 있는 생후 6개월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며 날카로운 부분은 없는지, 하중을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아이 손가락 등이 끼일 틈새는 없는지 꼼꼼히 확인한다. 성장 속도에 맞춰 의자의 높이와 등받이 조절이 가능하게 제작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고 트레이 가장자리에 턱이 있어 이유식기나 컵 등이 쉽게 떨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초기 이유식 시기에는 식탁의자 사용 횟수가 적기 때문에 접어서 보관할 수 있는 제품이 실용적이다. 식탁의자의 높이가 있는 만큼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가드와 벨트가 포함돼 있는지, 포함돼 있지 않다면 추가 구매가 가능한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다.

TIP

육아용품 구매 실전 노하우

☑ 구매 후기에서 확인한다

구매 전 제품에 대한 구매 후기를 체크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 제품 정보를 검색해 상품평 등을 꼼꼼히 비교해본다. 의류나 신발은 실물과 사진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지, 유모차나 카시트는 실제 사용하기에 불편함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저렴한 제품을 살 때 선택에 너무 공들이지 않는다

유모차나 카시트, 아기띠처럼 오래 사용하고 기능이 다양하며,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제품을 고를 때는 그만큼 신중을 기하는 게 맞다. 하지만 저렴한 가격에 잠깐 사용하는 제품이라면 선택 시 불필요한 수고는 줄이는 게 현명하다.



☑ 선택지를 줄인다

육아용품은 워낙 다양하다 보니 여러 종류의 제품을 놓고 비교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쇼핑하는 곳을 서너 군데로 정해두고 최대한 비교 대상을 줄이는 것이 좋다. 필요한 것보다 지금 당장 아이에게 필요 없는 것을 하나씩 제거하는 것도 방법이다.



☑ 선택하기 어렵다면 스테디셀러를 선택한다

초보 부모라면 이미 검증받은 스테디셀러를 구입하는 편이 안전하다. 부모들 사이에서 선호하는 브랜드가 명확한 제품부터 구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노하우가 쌓이고 단골 가게나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정보를 얻기 시작하면 각 제품의 장단점이 쉽게 파악될 것이다.



☑ 반값에 현혹되지 않는다

직구 열풍이 불면서 저렴한 가격에 육아용품을 구입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국내 판매가보다 파격적인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지만, AS나 환불이 어렵고, 용량이 큰 제품이 많다보니 다 쓰지 못하고 버리는 경우도 많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다 보니 불필요하게 과소비를 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꼭 필요한 용품만 신중히 구입하는 게 현명하다.

